

대학 3 학년인 아들이 해야하는 공부는 하지않고 캠퍼스 근처의 자취방에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 부모의 통장에서 이돈저돈을 끌어들이며 생활이 말이 아닌것이 드러나 이것을 모르고 그간 고생고생으로 뒷바라지 하시던 부모님들이 발견, 낭패감으로 하루가 멀다 고 전화로 도움을 청하시며 안절부절이시다. 또다른 경우는 공부를 곧잘해서 좋은 대학에도 입학허가를 받아놓은 아들이 그간 부모의 체크와 통장에서 돈을 가져다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으며 더우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못하며 오히려 쉽게 돈을 딸수있는 기회를 부모에게 방해받고 있는것에 대한 아쉬움과 원망으로 있는 아들을 본다. 또한 24 살이 다된 아들이 여자친구와의 결별후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는 지난 3,4 년간을 집안에서 아무것도 하지않고 외출도 끊어버리고는 집안에서 마약만을 일삼으며 점점 자기자신을 사회에서 가정에서 고립시키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자기 불안과 집착으로 더더욱 그것에 몰입하며 애꿎은 엄마에게만 돈을 요구하며 떼아닌 때 , 말그대로 언어폭력을 일삼고 있다. 이것외에도 사춘기때부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찾지못해 늘 수줍고 자신감없고 불안해하던 아이가 술을 마시기시작하면서 거짓 용기에 의지해 생활해나가는것에 대한 묘한 재미(?)에 맛이 들이기시작한 아이가 알콜중독증상이 생기기시작, 22 살이 된지금에도 자기자신의 의지에 의한 삶이 아닌 술에 의존하는 삶으로인해 사귀던 여자아이에게 강간범으로 기소당하는 아이, 그리고 정말 참으로 말로 다담을수없는 기가막힌 성추행사건들.... 이렇게 매일매일 유스앤드 웨밀리 포커스에는 911, SOS 케이스가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정신과 마음을 붙들어주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아마 심한 우울증이나 삶의 회의에 빠진 또다른 상담자가 필요한 환자가 되었는지 않을까 싶다. 이런 케이스의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들이니 나의 아이들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수있는가? 아니다 이들부모들이 바로 그런생각으로 살았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런 많은 케이스를 보면 문제가 만들어질수밖에 없는 절박한 환경이다라고 싶은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않다 . 그말은 대부분의 케이스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가 가정이 꼭 가르쳐주었어야할 가장 기본적인 바른 물질관, 가치관을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음으로인한 건전하고 바른 정체성이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없어서 춥고 배고파서가 아니라 이미 풍족하게 주어진것에 대한 바른 가치인정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가르침과 훈련이 되어지지 못해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때 주어지는 권리나 특권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며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어야하는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무지의 결과이기도 하다. 매년 청소년들의 광야 캠프를 실시하면서 다시금 내자신도 놀라는것은 우리어른들이 아이들을 너무 잘못알고 있고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라는것이다. 집안에서 공주, 왕자노릇으로 잔뼈가 굵은(?) 아이들이 과연 야영캠프와 이웃의 불우한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 그 힘든 일들을 해낼까? 잠자리, 화장실, 샤워, 말도안되는 상황과 그 벌레와 곤충들을 어떻게 견딜까? 라는 의구심과 불안감으로 아이들을 보내시지만 결과는 아이들자신도 부모들도 놀라시는 결과를 늘 만들어내곤한다. 떠날때는 뽀루통한 아이들이 (처음가는 아이들) 돌아와서는 엄마, 아빠에게 “내게 진짜 멋진기회를 주심을 감사해요”라며 그들이 6박 7일의 캠프이야기를 쉬지않고 이야기하며 내년에 또갈래요를 요구하는 아이들을 볼때 부모님들이 내게 계속 물어대신다. “아니 도대체 꼬질꼬질해서 돌아온게 고생이 말이 아니었던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좋았대요”:라고 .. 나는 이말을 들으면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거예요 하곤 웃는다. 그렇다.다녀온 아이들의삶이 달라지는 것이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녀들이 늘 말로 요구하며 투정하는것에 길들여져있어서 그들의 내면의 진정한 요구와 필요가 무엇인지를 감지하는데 무지해지고 감지하려고 하지않는 부모들이 되어버렸다. 자녀들이 편하고 안락한것들, 더좋은 물질로만 요구하고 있는것같지만 실은 그들은 내면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것이다” 엄마 아빠 내가 따르고 본받을 만한 권위를 가지시고 나를 훈계해주시고 가르쳐주세요, 내가 따르고 본받을 만한 가치있고 의미있는것으로 내가 채워나갈수있는 기회들을 제공해주세요”라고 말이다.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타인에대한 아픔과 안타까움을 체험하는 가슴으로 느끼게하는 경험들은 좋고 안락한 환경과 풍요로운 물질로만 으로는 만들어질수없는 다른것 즉...아이들의 평생에 아름다운 가치관과 물질관, 인생관, 나가서는 세계관을 갖게하는것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인 나는

우리자녀에게 바른 가치관과 물질관을 가르치고 심어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아야할것같다.